

## 영아기 및 소아기 심실중격결손증 수술결과 비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외과

맹대현, 박영환, 홍유선, 조범구

**배경 및 목적 :** 심실중격결손증은 소아 선천성 심질환중 가장 흔한 것으로 최근 수술기법의 발달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 교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자의 수술 전후 심에코도를 분석하여 수술후 영아와 소아 그리고 교정 방법의 차이에 의한 혈액학적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5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외과에서 수술한 317례의 심실중격결손증 환자 중 추적이 가능한 277례의 임상소견 및 치료성적과 환자의 술전, 수술 직후, 그리고 마지막 추적 관찰한 심에코도의 결과를 분석하여 영아(n=164)와 소아(n=113)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영아 환자중 73례(44.5%)에서 우심방 절개, 68례(41.5%)에서 우심실 절개, 23례(14.0%)에서 폐동맥 절개를 통해 수술하였고, 우심방 절개를 통해 수술한 예중 33례에서 삼첨판막 중격엽에 절개를 가한 후 수술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에서 수술전후 우심실/좌심실 압력 비의 변화는 수술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5), 영아에서는 수술 직후부터 감소하였지만(p<0.001), 소아에서는 수술 직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추적 중에 점차 감소하였다(p<0.001). 전체 사망은 4례로 사망률은 1.26%였다. 완전방실차단은 2례(0.64%, 막상주위형, 모두 영아)에서 있었으며 모두 영구 심박동기를 삽입하였다. 영아에서 소아보다 술후 평균 인공호흡기 부착기간, 중환자실 입원기간 및 수술후 재원 기간이 길었으며(p<0.001), 접근방법(특히 우심실 절개법과 삼첨판막 중격엽 절개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잔존 심실중격결손증은 수술 직후에 18례(영아:소아=9:9)에서 있었지만 추적관찰 중 9례에서 자연폐쇄 되었고 9례(2.86%, 영아:소아=4:5)가 남아 있으며 전 예에서 재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작은 크기였다.

**결론 :** 영아보다 소아에서 상승된 우심실/좌심실 압력비는 바로 감소되지 않아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면밀한 관찰과 치료가 요망된다. 삼첨판막 절개법이 우심실 절개법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